

인간의 내면 파헤친 영혼의 예술가

훗타 요시에 지음 《고야》(전4권)를 읽고

이석우

경희대 교수·서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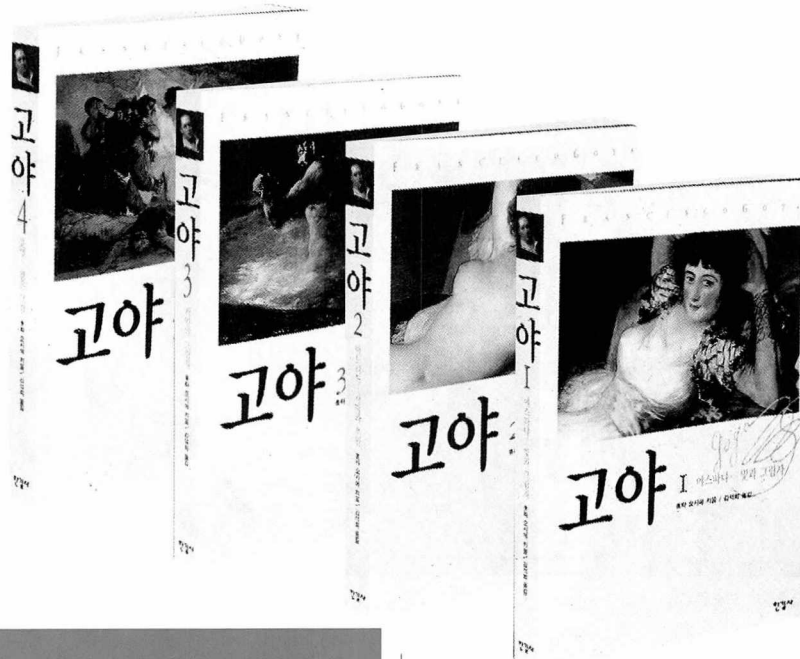
예술과 인생의 거인 '고야'의 4부작을 읽고 나니 내 자신 긴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느낌이다. 책을 읽는 동안 나는 고야가 살던 시대, 그가 살던 에스파냐와 유럽을 멀리멀리 유명하고 있었다. 그 일탈은 나와 내 삶으로부터의 감미로운 단절이었지만 정신과 영혼은 마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탄 듯 만감이 오가는 충일감에 차 있었다. 질푸른 바다의 무거운 파도가 해변의 검은 바위에 부딪혀 그 하얀 작렬의 파괴를 반복하는 듯이. 읽는 동안 내 의식의 차오름을 이기지 못하여 책을 놓고 몇번이고 걸어 나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예술사 차원으로 끌어올린 전기

《고야》를 읽으면서 자꾸만 저자인 훗타 요시에를 떠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예술가를 탐구하려는 그의 집념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고야에 대해 써어진 모든 책을 섭렵한 것으로 보인다. 고야의 작품을 보기 위해 어디든 몇번이나 갔다. 더구나 그와 관계된 곳,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을 찾아가서 과거와 현재를 함께 조명함으로써 생생한 현장감을 전해주고 있다.

고야를 쓰게 된 동기는 그의 쓰라린 전쟁 체험과 관계되어 있다. 기실 작가는 그의 체험들을 고야를 통해 투사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는 "역사는 사실이고, 문학은 인간이며 상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책 속에서 이 두 세계를 자유로이 넘나들며 자신의 문학세계를 도도히 펼쳐나간다. 그의 해박한 지식, 뛰어난 상상력, 치열한 구성력은 이 책을 하나의 단순한 예술전기가 아닌 당대의 문화사, 예술사의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훗타 요시에는 에스파냐를 자주 러시아와 비교하고 있는데, 자신의 문학관이 도스토예프스키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음도 숨겨려 하지 않는다. 작가는 인간의 광기·이기심·폭력 등이 예술과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직시하려 한다. 그는 공포와 사랑이 인간을 지배하는 정서적 요인이기도 하지만 분노와 증오 또한 그에 못지 않는 정념의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결국 '고야'라는 인물을 통해 추적해 보고 싶은 것은 인간의 조건, 인간의 본질 문제라 할



고야는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폭로하고,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모든 것을 파헤치고, 이를 그림으로 고발하는 엄정한 저항정신의 소유자였다. 그것이 종교적 위엄을 갖춘 것이든 광인이나 악마들의 향연이든 그림의 진실 속에 담아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수 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인간존재의 실존을 예리하게 직시하고 고야를 통해 이들 문제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해답을 얻으려 하고 있다.

평민에서 궁정화가에 오르기까지

고야와 그의 예술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삶의 무대인 에스파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자가 에스파냐를 조감하는 데 첫째권을 할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땅은 척박하고 기후는 혹독하여 아홉달의 겨울은 차갑고 삼개월의 여름 태양빛은 잔혹하리만큼 따갑다. 가난은 오랜 뿌리를 갖고 있어서 혹자는 에스파냐의 역사를 배부른자와 굶주린자의 역사로 나누기까지 한다. 겨우 2%의 인구가 5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니 황금으로 꾸며진 속에 숨겨진 견딜 수 없는 굶주림이라고나 할까. 80명 중에 한명이 거지라니 그들의 눈속 깊이 숨겨진 원망이나 원한을 탓할 일만은 아니다.

이 모순의 땅에 평민으로 태어나 궁정화가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고야의 인생여정은 그 자체가 바로 드라마이다. 예술과 장식문화가 모두 상류계층의 소유물인 상황에서 왕족이나 귀족, 권력자들의 지원 없이는 그의 예술의 탄생이 불가능했으리라. 적어도 외양적으로 그가 '출세주의자', '대세순응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발견된다.

그러나 고야는 그곳에만 머무르는 인물이 아니었다. 물론 그는 어느 누구 못지 않은 이기심과 교활함까지 느끼게 하는 인간의 약점과 강점을 두루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영혼 속에는 잠재될 수 없는 진실을 향한 갈구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꿰뚫어본 듯한 진실이 드러나 있다.

그가 그렸던 그 많은 초상화들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본인의 캐릭터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비록 왕의 옷을 걸치고 반짝거리는 장식을 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이중성·불안·속물성 같은 인간적 약점은 그의 그림 속에서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 반면 그는 이름없는 민중을 화면에 의식적으로 등장시킨 최초의 화가였다.

또한 《전쟁의 참화》, 《변덕》, 《5월2일》, 《5월3일》 등의 작품에서 보여주듯이 시대와 인간성, 사회 정치에 대한 예리한 비판을 통해 리얼리즘 시대의 여명을 열고 정통화의 완벽성을 과감하게 부숴냈다. 이것이 결국 인상파, 초현실주의, 표현주의, 심지어 낭만주의 예술의 단초까지 마련하는 계기를 열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미술사가 벤투리는 고

야를 근대 미술을 연 선각자로 보기까지 했다.

고야는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폭로하고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모든 것을 파헤치고 이를 그림으로 고발하는 엄정한 저항정신의 소유자였다. 그것이 종교적인 위엄을 갖춘 것이든 광인이나 악마들의 향연이든 그림의 진실 속에 담아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자기가 본 것을 표현하려는 예술가의 진실을 향한 에고이즘(?)은 도덕이나 감정, 이해의 조건까지도 뛰어넘어 무서운 힘으로 고야를 광기 속으로 몰아넣었다.

핑크빛 논란이 많은 고야의 두 작품, 《옷입은 마하》와 《벌거벗은 마하》에 대한 이해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작중의 인물이 누구이든 여체 그대로의 여자, 성을 가진 여성의 진실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몇가지 에피소드로 예술가를 이해한다고 믿고, 몇 개의 미술유파적 기준으로 작품을 재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저자는 한 작가와 작품의 이해가 얼마나 깊은 문화·역사·풍습·사상·인종적 배경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지 이 책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저자는 21세기 문화지성들의 지향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예감케 하고 있다. 다가올 세기의 구성원들은 문화예술을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통해서만 진정 문화를 사랑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 말이다. 고야는 그의 생애 마지막에 끝내 '허무'를 보았다. 모든 인간들은 역사 무대에 잠시 등장했다가 시간 속에 묻혀버리지만, 살아 있는 동안 실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 책은 고야의 많은 그림을 수록함으로써 화집의 수고까지 해주고 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싶다면 고야를 보기 위해 당장 유럽으로 떠나고 싶다. 내용이 생명의 언어로 가득차 있는 것은 그만큼 번역자의 공이 크다는 뜻이다. 역사 예술의 대중화에도 큰 몫을 하리라 믿는다. 이 우울한 IMF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정신적 자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리라 기대해 본다. 어쨌거나 경제적 어려움은 정신적으로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

한길사/A5신/각 340면 내외/각 14,500원